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FALTER KINGDOM

가제 : 필터 킹덤

저자 : Josh Martin

출판사: Michael Seidlinger

발행일: 2016년 8월 26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보이지 않는 악마에 사로잡힌 십대 소년의 성장기, 현대판 『호밀밭의 파수꾼』
- * Tor.com,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Chicago Review of Books), 볼륨 원 브룩클린(Vol. 1 Brooklyn)에서 ‘최고의 신작’으로 뽑힌 판타지/호러 소설
- * “새드링거는 새로운 장르에 뛰어들어 전에 없던 자신만의 장르로 바꾸어 놓는 문학계의 카멜레온이다. 그 자신이야말로 국경 없는 왕국이다.” - 『All This Life』의 작가, 조슈아 모어(Joshua Mohr)

도시 한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시커먼 어둠으로 가득한 터널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헨터는 지루하고 그리 행복하지 않은 일상에 젖어 아무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게만 느껴지던 차에, 충동적으로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터널은 그냥 어둡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 터널은 아무도 끝까지 가본 적이 없고 실수로, 혹은 호기심에 못 이겨 들어갔던 사람들은 악마에 씌어 되마 의식을 치러야 했다는 섬뜩한 이야기가 전해지던 곳이다. 헨터는 그 무모한 도전으로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들어온 악마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필터 킹덤’이라 불리는 깊은 터널은 북적대는 시내를 지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어 급수탑과 주인 없는 고물 자동차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면 그 입구가 보이기 시작한다. 왕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누군가 입구 윗부분에 시커먼 페인트로 큰 왕관 모양을 그려놓은 바람에 멀리서도 잘 보인다. 어느 마을이나 그렇듯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외진 장소는 십대 아이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명소’가 되기 마련이다. 헨터와 친구들에게도 필터 킹덤은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담배도 피우는 아지트였다. 입구는 괴상한 왕관 그림 탓에 다소 유쾌한 분위기마저 느껴지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칙칙 같은 어둠이 짙게 채워져 있다. 하수도라 하기에는 차 한대는 거뜬히 들어갈 만큼 제법 큰 이 터널은 원래 시가 전철을 만들 때 철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구멍을 다 뚫어놓고 보니 안쪽에 균열이 생겨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 터널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사람들은 터널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일꾼들 가운데 절반이 악귀에 씌었다고들 수군댔다. 그러나 영화처럼 악마를 몸에서 쫓아내는 사제를 불러 퇴마 의식을 치르자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바람에, 악마의 희생양으로 평생 살다 죽었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헨터 또래의 아이들은 반 정도도 믿지 않았다. 펄터 킹덤은 그저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조용한 장소일 뿐이었다. 그러나 헨터는 이런저런 일로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그곳을 찾은 어느 날, 맥주 두 캔이 붙어넣은 용기인지 무모함인지 모를 담력과 옆에서 이죽대는 친구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다는 오기로 펄터 킹덤 안에 들어서고 말았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전력 질주하던 헨터는 어느 순간, 앞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숨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진공관에 들어온 것처럼,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이상한 공간에 들어선 것이다. 발길을 돌린 헨터는 다시 처음 뛰어들어간 터널 입구로 무사히 빠져 나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헨터는 더 이상 예전의 헨터가 아니었다.

자신을 “에이치(H)”라 칭하는 악마에게 몸을 빼앗긴 헨터는 그 상태로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모든 것을 부모님께 털어놓고 퇴마 의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한 충동이 헨터의 마음을 휘저었다. 지루하기만 하던 학교 생활이 슬슬 재미있어진 것이다. 펄터 킹덤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은 그를 학교에서 일약 스타로 만들어서 마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게다가 함께 놀러 다니긴 하지만 친구를 가장한 적들만 우글댈 뿐, 마음을 나눌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었던 헨터에게 “에이치”는 묘한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가 악마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가 몸에 들어온 목적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도 잘 알지만 헨터는 그를 떼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마이클 세들링거(Michael Seidlinger)는 출판사 일렉트릭 리터러처(Electric Literature)에서 도서 리뷰 편집자로 일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소설과 비소설을 소개하는 잡지 「Civil Coping Mechanisms」에서 발행인을 맡고 있다. 소설 『The Strangest』, 『The Fun We've Had』, 『The Laughter of Strangers』 등 여러 편의 작품을 썼다.

제목 : WED WABBIT

가제 : 빨강 토끼

저자 : Lissa Evans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7년 2월 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카네기 메달과 코스타 북 어워드 결선, 가디언 아동도서 상 후보에 올랐던 작가의 특별한 신작
- * 프랜시스 버넷의 명작 『비밀의 화원』을 현대에 재현한 모험 이야기
- * 상실감과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아동 소설

피지와 미니, 엄마는 다가오는 주말에 엄청나게 신나는 휴가는 보낼 계획이었다. 네 살밖에 안 된 미니는 꼬마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풀장에서 엄마랑 물장구를 치고, 그 동안 피지는 카누와 다이빙을 배우고 암벽등반, 등산, 나침반 보고 길 찾기 같은 신나는 일을 이것저것 해볼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엄마는 출발 직전까지 일하느라 바빠서, 미니를 챙기고 배낭을 챙기는 것도 다 피지의 몫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준비물을 사러 세 사람이 외출한 날, 그만 미니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피지는 유별난 사춘 그레이엄이 있는 사이먼 삼촌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된다. 그곳에서 피지와 그레이엄에게 미니가 가장 좋아하는 ‘빨강 토끼’ 인형과 보라 빨강 노랑 녹색 색깔도, 성격도 다양한 워블리 우 인형들, 삼촌의 집을 둘러싼 정원에서 신기한 모험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튼튼했던 아빠가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난 뒤, 피지는 엄마와 미니를 아빠 뒤편까지 챙기는 씩씩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제 겨우 열살 반밖에 안 된 어린이지만 아빠를 쏙 빼 닮아 늘 어설픈 두 사람이 저지르는 온갖 실수를 다 해결하고, 정신 없이 바쁜 엄마를 거들고, 인형에 파묻혀 때만 쓰는 귀여운 동생을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은 ‘워블리 우’라는 여러 가지 색깔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험 이야기이고,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아빠 장례식을 치른 지 채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중고 상점에서 발견한 빨간 토끼 인형이다. 허 짧은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잘 아는 미니는 ‘빨강 토끼’라 이름 붙인 그 인형을 몸에서 한 시도 떼어놓지 않으려 하는데, 피지는 어쩐지 그 인형이 싫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처음 봐서인지, 활짝 웃는 귀여운 얼굴의 다른 인형들과 달리 웬지 의기양양한 빨강 토끼의 표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미니가 안 볼 때 토끼를 몰래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런 마음이 미니를 다치게 만든 사고가 될 줄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다. 하필 신나는 휴가를 앞두고 토끼 때문에 미니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엄마와 미니는 쇼핑몰에만 가면 늦장을 부리기 일쑤였다. 결국 피지가 꼭 사려고 했던 샌들은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미니가 쇼핑몰까지 데려온 빨강 토끼 인형을 툭 떨어뜨리고 앞으로 걸어갔다. 이래저래 짜증이 난 피지는 인형을 발로 뺨, 차버렸는데 토끼가 숨 날아가는 걸 본 미니가 총알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말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미니는 그 쪽으로 오던 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가 동생 곁을 지키는 동안, 피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사이먼 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삼촌의 집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된 이후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촌 그레이엄이 있었다. 병에 걸리거나 몸이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온종일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그레이엄은 학교도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공부도 집에서 하는 아이였다. 삼촌이 부유한 덕분에 심리치료사나 상담사가 여럿 붙어서 그레이엄이 느끼는 공포를 덜어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피지는 현실보다 끔찍한 상상 속에 매어 사는 그레이엄을 이해할 수 없어 사사건건 부딪히지만, 두 사람은 아주 조금씩, 각자의 깊은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좋은 친구가 된다.

<저자 소개>

리사 에반스(Lissa Evans)는 의사로 일하다가 BBC 라디오 코미디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전향한 후 현재까지 TV 프로듀서로 활약하고 있다. 일반 소설과 아동 소설을 여러 편 발표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Their Finest Hour and a Half』는 ‘오렌지 상’ 후보에 올랐고, 『Small Change for Stuart』는 카네기 메달, 코스타 북 어워드 등 수많은 상의 결승작으로 선정됐다. 다크 코미디 소설 『Crooked Heart』는 베일리스 여성 소설상 후보에 올랐다.